

Kstat Report

80호 || 2023년 8월 17일

우리사회 주요 문제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 우리사회 주요 문제 걱정 정도

- _ '지도층 비리', '기후변화', '물가', '인구감소' 걱정 많아
- _ 걱정 정도와 순위, 6개월 전과 거의 비슷
- _ 20대보다 30대, 남성보다 여성 걱정 높아
- _ 4060세대 중 40대 걱정 정도 가장 높아
- _ 진보층 걱정 정도 높고, 보수·중도층 상대적으로 낮아

■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 기대 정치세력

- _ 기대감 매우 낮은 가운데, 정부·여당 근소하게 우위
- _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6개월 전과 비슷
- _ 남자 20대 정부·여당 vs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야당
- _ 40대 야당 우위, 60대이상 정부·여당 우위
- _ 수도권 팽팽, 충청과 PK 정부·여당 우위
- _ 호남은 야당, TK는 정부·여당 우위
- _ 보수층과 진보층, 이념 따른 정치세력 지지 뚜렷

■ 주요 문제 해결 방향성

- _ 우리사회 주요문제,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72%
- _ '개인 삶',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60%

조사개요

| | |
|------|---|
| 조사기간 | 2023년 8월 11일(금) ~ 8월 13일(일)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
| 조사기관 | 케이스탯 |
| 표본추출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
| 표본틀 | 케이스탯 K-패널 |
| 유효표본 | 총 1,037명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
| 가중치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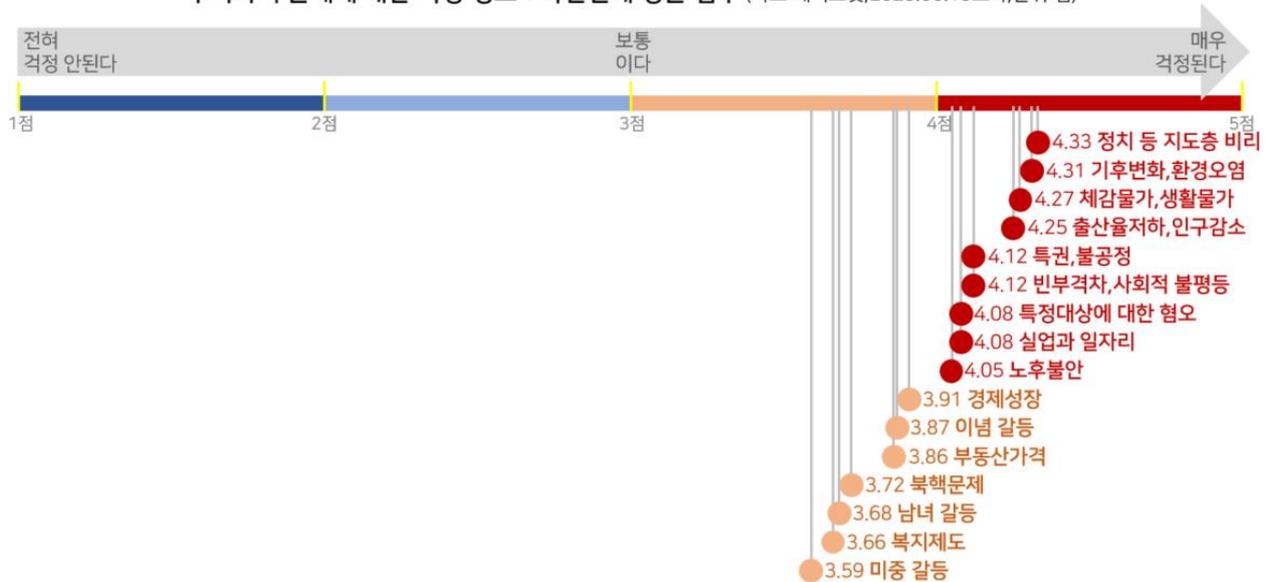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사회 주요 문제 걱정 정도

□ '지도층 비리', '기후변화', '물가', '인구감소' 걱정 많아

-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정치 등 지도층 비리'이고, 다음은 '기후변화,환경오염', '체감물가,생활물가', '출산율저하,인구감소' 순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 각각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걱정되세요?"라는 질문 후 아래 문제를 제시함
 - 정치·외교 부문 : 정치 등 지도층 비리 / 복핵 문제 / 미중 갈등 / 이념 갈등
 - 경제 부문 : 실업과 일자리 / 체감물가, 생활물가 / 부동산 가격 / 경제 성장
 - 사회 부문 :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 남녀 갈등 / 특권, 불공정 /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 기타 부문 : 기후변화, 환경오염 / 노후 불안 / 복지제도 /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 조사는 '00 부문'을 삭제하고, 총 16개 문제를 랜덤하게 제시한 후에 각 문제마다 걱정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짐
- 걱정 정도가 가장 낮은 문제는 '미중 갈등'이고, 다음은 '복지제도', '남녀 갈등', '복핵문제' 순임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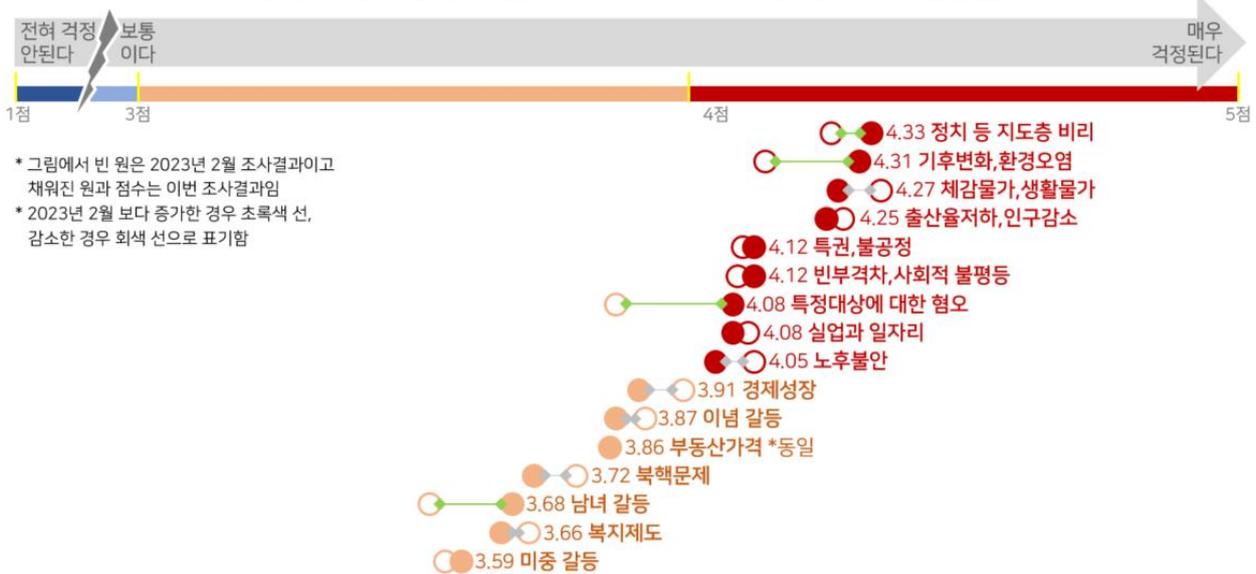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음
 - : 총 16개 문제 모두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매우 걱정된다'에 가까운 4점 이상을 기록한 문제가 9개로 절반을 넘음
 - : 그만큼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러한 가운데 2023년 8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정치 등 지도층 비리'로 나타남
 - :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각종 비리 의혹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에서 제기된 대통령 처가 땅값 상승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지난 7월 케이스탯 사회지표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정치 등 지도층 부패'가 46%로 가장 높았던 것과 궤를 같이한 결과임
- ☑ 다음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올여름의 폭염과 폭우, 태풍 등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걱정 정도와 순위, 6개월 전과 거의 비슷

- 6개월 전인 2023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정도와 순위가 거의 비슷함
 - 대부분 문제들이 6개월 전과 비슷한 점수를 기록함
- 점수가 비교적 많이 상승한 문제는 ‘정치 등 지도층 비리’(4.26점 → 4.33점), ‘기후변화, 환경오염’(4.14점 → 4.31점),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3.87점 → 4.08점), ‘남녀 갈등’(3.53점 → 3.68점) 등임
- ‘정치 등 지도층 비리’는 6개월 전 순위가 3위였으나, 점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1위를 기록함
- 이에 비해 점수가 하락한 문제들은 그 폭이 소폭에 그친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문제는 ‘체감물가, 생활물가’(4.35점 → 4.27점), ‘노후불안’(4.12점 → 4.05점), ‘경제성장’(3.99점 → 3.91점) 등임
- ‘체감물가, 생활물가’의 경우 6개월 전에 걱정 순위 1위였으나, 점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순위 역시 3위로 낮아짐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2023년 2월과 비교 (자료:케이스탯,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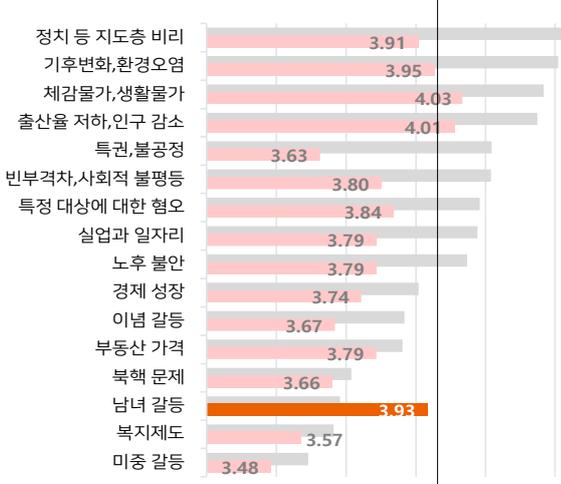
Kstat Point

- ☑ 6개월 전(2023년 2월)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들의 정도와 순위가 비슷함
 -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 정부·여당의 다양한 정책추진과 민주당 등 야당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달라진 것이 없는 양상임
 - :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 등 지도층 비리’ 문제를 걱정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와 ‘체감물가, 생활물가’, ‘출산율저하,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각종 정책·정치행위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분석됨
 - :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불만을 더욱 반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임
- ☑ 또한 6개월 전에 비해 걱정 정도가 낮아진 문제들은 하락 폭이 적은 데 비해, 걱정 정도가 높아진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큰 점도 특징적임
 - : 즉, 국민들은 우리사회 문제들이 개선되기보다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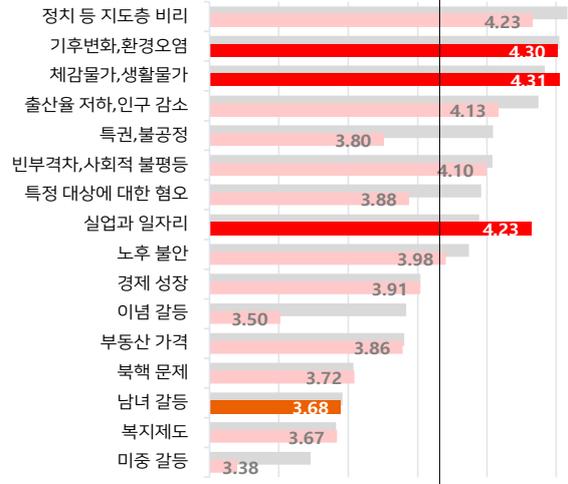
□ 20대보다 30대, 남성보다 여성 걱정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16개 문제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색,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세로 검은 선은 ‘4점’(매우 걱정된다 수준) 기준선임
- 걱정 정도는 다른데, 20대보다 30대의 점수가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높음
 - 국민 전체보다 점수가 높은 문제 수를 살펴보면 남자 20대는 1개인데 비해, 여자 30대는 12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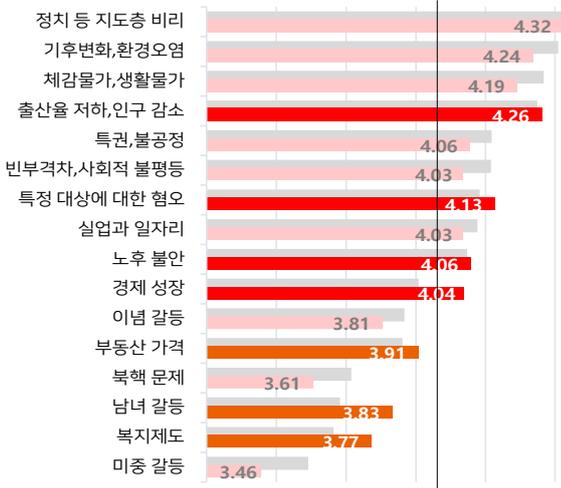
남자 18~2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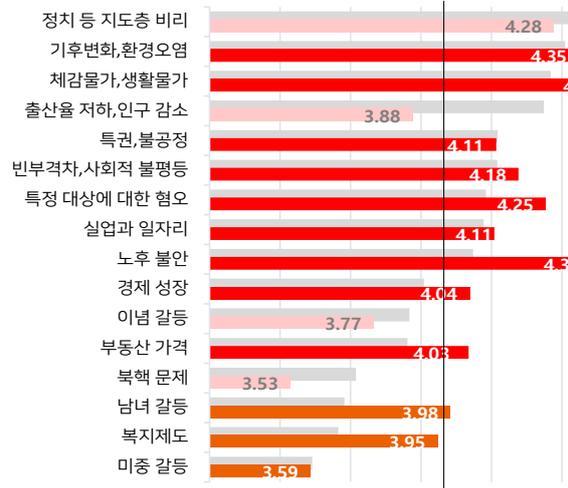
여자 18~2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남자 3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여자 3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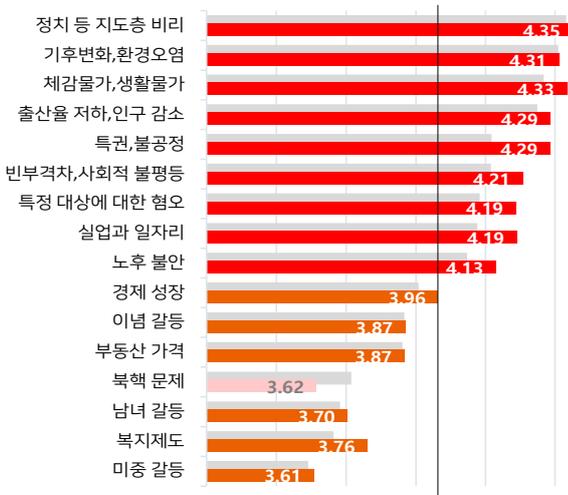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 모두 우리사회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 걱정 정도는 성/연령별로 다름
 - : 상대적으로 20대보다 30대의 걱정 정도가 높고, 같은 세대 안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걱정하고 있음
 - : 남자 20대는 모든 성/연령층 중 걱정 정도가 가장 낮지만, 예외적으로 ‘남녀 갈등’ 문제는 국민 전체보다 높음
- ☑ 한편,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에 대한 여자 30대의 태도가 주목됨
 - : 여자 30대는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문제의 당사자 격으로, 이 문제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취해왔음
 - : 이번 조사에서도 여자 30대의 걱정 점수는 3.88점으로, 모든 성/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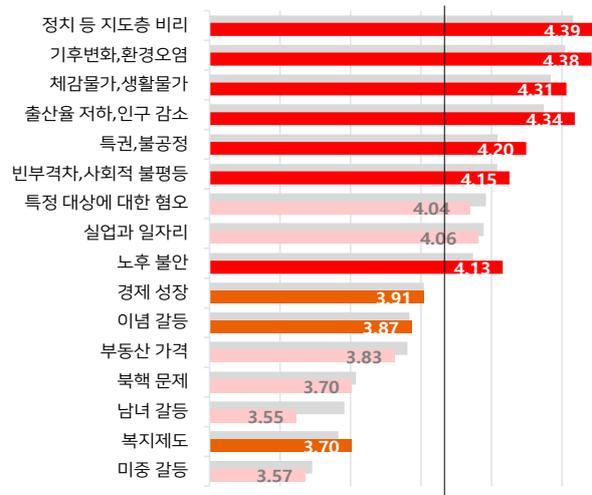
□ 4060세대 중 40대 걱정 정도 가장 높아

- 4060세대 역시 16개 문제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색,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세로 검은 선은 ‘4점’(매우 걱정된다 수준) 기준선임
- 특히 40대의 걱정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50대, 60대이상 순으로 나타남
 - 국민전체 보다 점수가 높은 문제 수를 살펴보면 40대 15개, 50대 10개, 60대이상 9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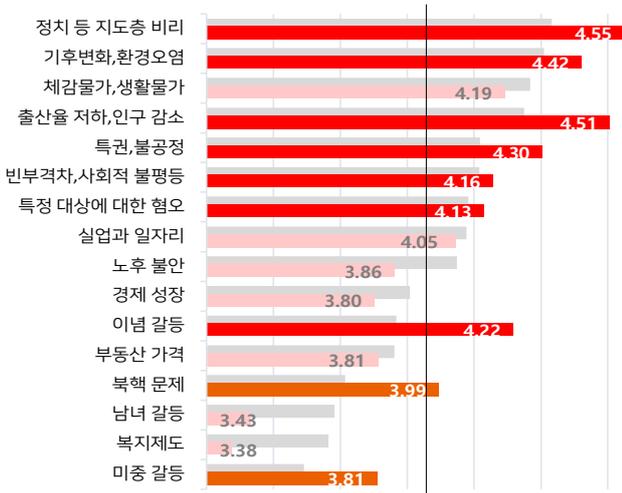
4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5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60대이상,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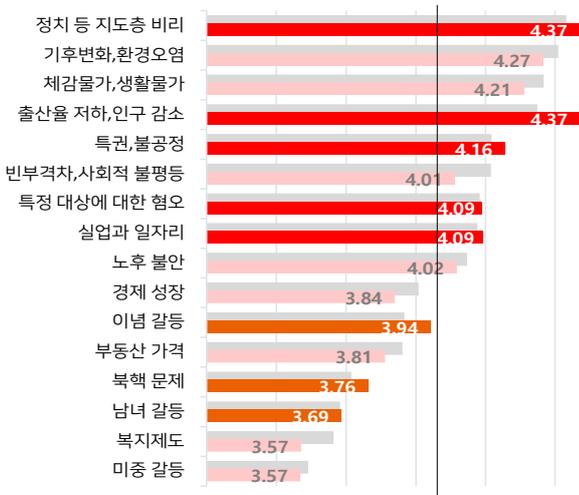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사회 문제들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세대는 40대이고, 다음은 여자 30대임
 - ： 특히 40대는 ‘북핵문제’ 1개를 제외한 15개 문제 모두 국민전체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 40대와 가장 대비되는 세대는 20대(특히 남자 20대)로, 이들의 걱정 점수가 가장 낮음
- ☑ 한편, 각 성/연령별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 남녀 20대와 여자 30대, ‘체감물가,생활물가’ / 남자 30대와 4060세대, ‘정치 등 지도층 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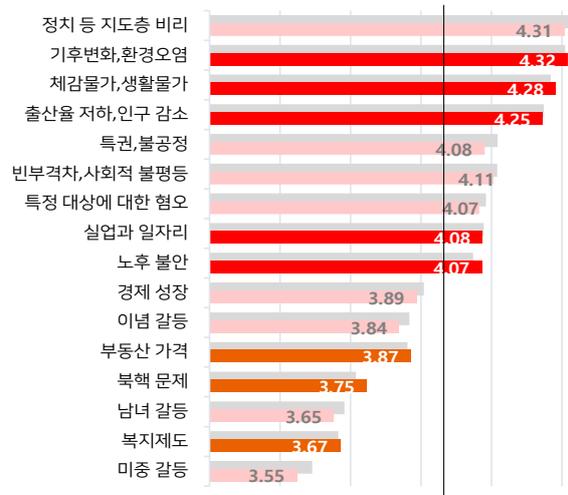
□ 진보층 걱정 정도 높고, 보수·중도층 상대적으로 낮아

- 이념별로 살펴보면, 16개 문제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색, 높으면 짙은 색으로 표기함.
 - 세로 검은 선은 ‘4점’(매우 걱정된다 수준) 기준선임
- 진보층의 걱정 정도가 높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걱정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국민 전체보다 점수가 높은 문제 수를 살펴보면 진보층 11개, 보수층과 중도층은 공히 8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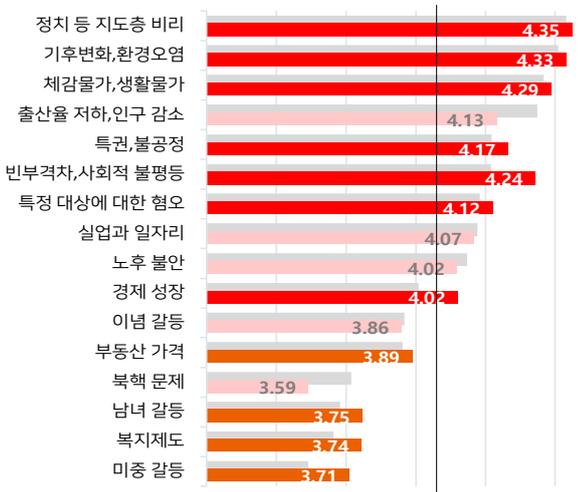
보수층,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중도층,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진보층,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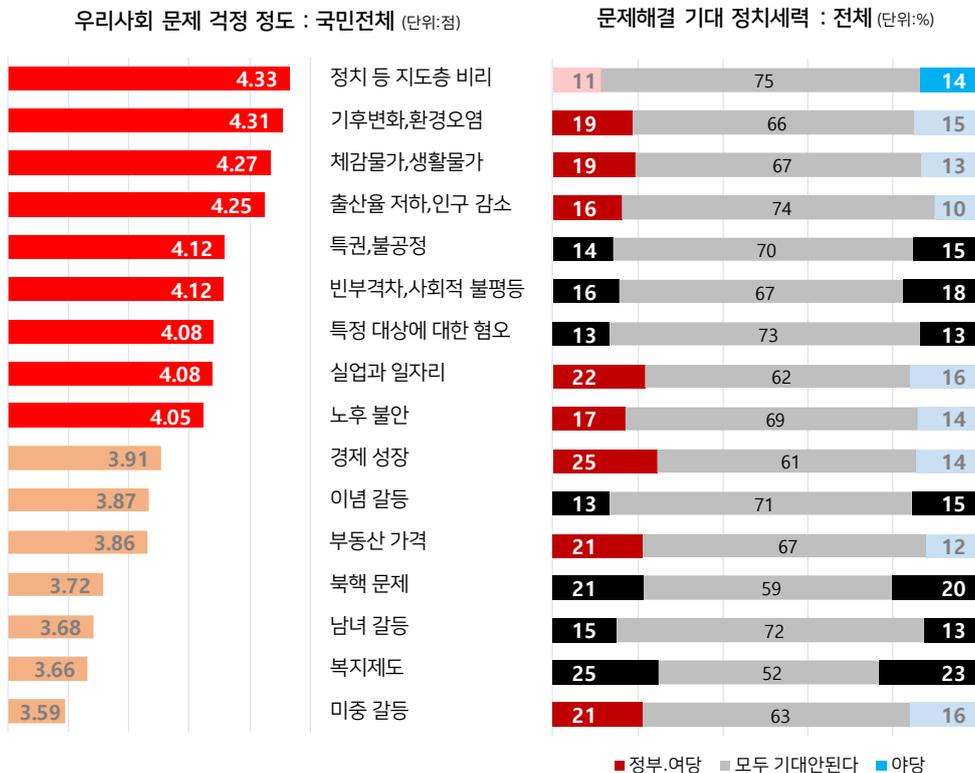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사회 문제에 대해 진보층은 매우 걱정하고 있고, 보수층과 중도층은 진보층보다 걱정 정도가 낮음
 - : 진보층의 걱정 정도가 높은 것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는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 주목되는 점은 보수층과 중도층으로, 이들 역시 진보층보다는 낮지만, 절대적 측면에서 걱정 정도가 높아,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엇보임
- ☑ 한편, 진보층과 보수층은 공히 ‘정치 등 지도층 비리’를 가장 걱정하고, 중도층은 ‘기후변화,환경오염’을 가장 걱정함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 기대 정치세력

기대감 매우 낮은 가운데, 정부·여당 근소하게 우위

- 우리 사회 문제를 정부·여당과 야당 중 누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앞서 우리 사회 각각의 문제를 어느 정치주체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① 정부·여당, ② 야당, ③ 모두 기대가 안된다 등의 보기를 제시한 결과임
- 총 16개 문제 중 정부·여당이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8개이고, 야당이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1개, 나머지 7개는 박빙으로 나타남
 -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짙은 붉은 색은 정부·여당 우위, 짙은 파란 색은 야당 우위, 검정색은 박빙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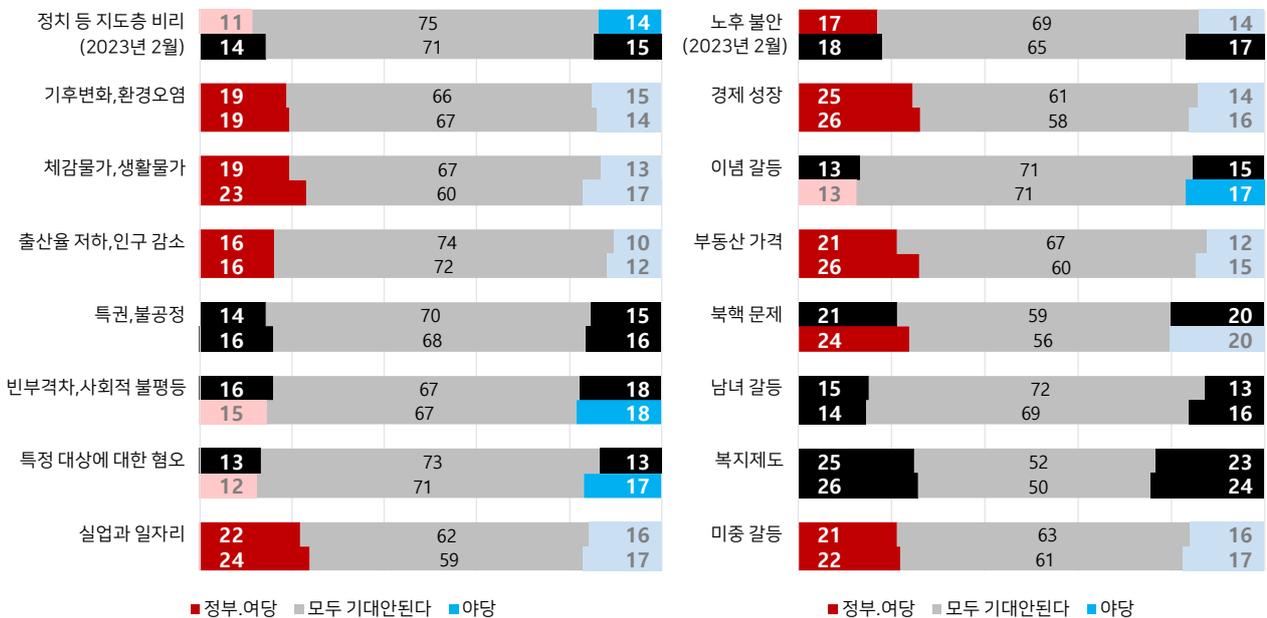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 : 16개 문제 전체에 걸쳐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낮음
- ☑ 총 16개 문제 중 정부·여당이 8개 문제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야당이 1개 문제에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함
 - : 정부·여당이 수적으로 많지만,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긍정적이라 말하기 어려움
 - : 그렇다고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우위를 보인 문제가 1개에 불과할 정도로 그 기대감이 너무 낮음
- ☑ 내년 22대 총선을 전망할 때, 국민들은 특정 정치세력(여당 또는 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이 싫어서 반대 정치세력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 이는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투표 경향과 유사한 모습임

□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6개월 전과 비슷

- 6개월 전인 2023년 2월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가 비슷함
 -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정부·여당 및 야당에 대한 기대감은 낮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상승함
 - 6개월 전에는 총 16개 문제 중 정부·여당이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8개이고, 야당이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3개, 나머지 5개는 박빙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여당 우위 8개, 야당 우위 1개, 7개 박빙으로 조사됨
 - 아래 그림에서 짙은 붉은 색은 정부·여당 우위, 짙은 파란 색은 야당 우위, 검정색은 박빙을 뜻함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응답 추이 : 국민전체 (단위:%)



Kstat Point

- ☑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정치세력 기대감은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매우 낮음
 - : 즉, 국민들이 정부·여당과 야당에 기대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관된 모습임
 - : 이와 관련 케이스탯 사회지표 조사 중 ‘정당 호감도’를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22~37% 수준에 그침
- ☑ 앞서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및 순위가 6개월 전과 거의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세력 기대감 역시 거의 유사함
 - : 이는 우리사회 및 정치세력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거의 고정화된 결과로 보임
 - : 내년 22대 총선 시기까지 정부·여당 또는 야당의 대대적인 혁신과 같은 정치적 충격이 없는 한 이러한 시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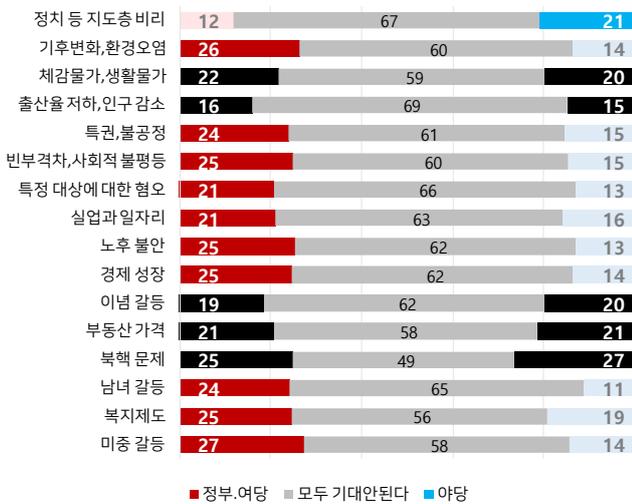
□ 남자 20대 정부·여당 vs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야당

- 2030세대의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을 살펴보면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남자 20대는 ‘정부·여당’, 여자 20대와 남녀 30대는 ‘야당’ 우세를 보임
- 남녀 2030세대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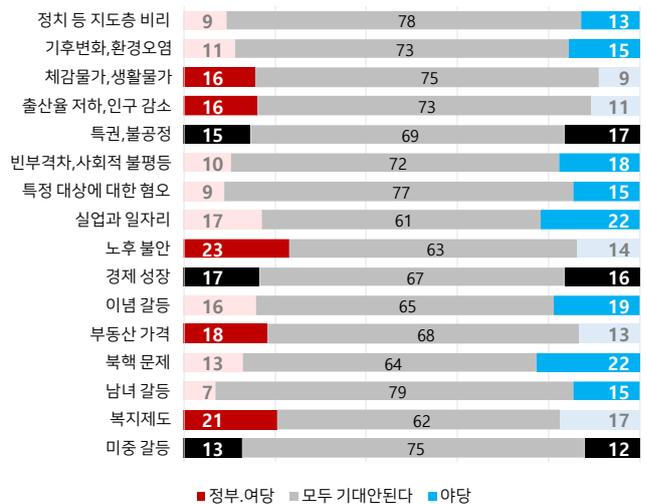
남자 20대 : 정부·여당 10개 > 야당 1개 / 박빙 5개
 남자 30대 : 정부·여당 2개 < 야당 12개 / 박빙 2개

여자 20대 : 정부·여당 5개 < 야당 8개 / 박빙 3개
 여자 30대 : 정부·여당 2개 < 야당 12개 / 박빙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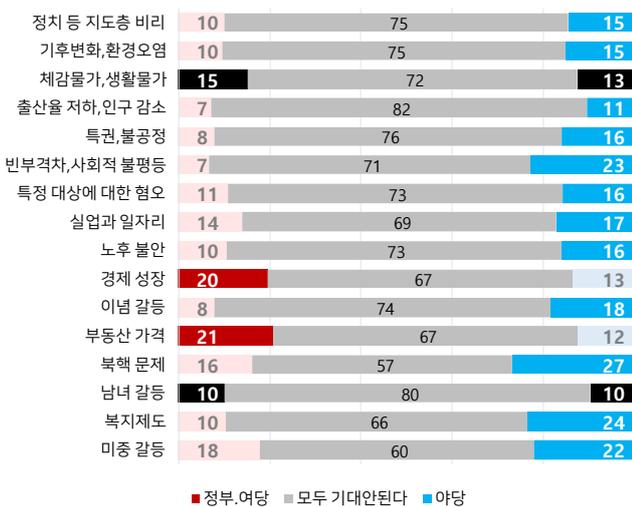
남자 18~2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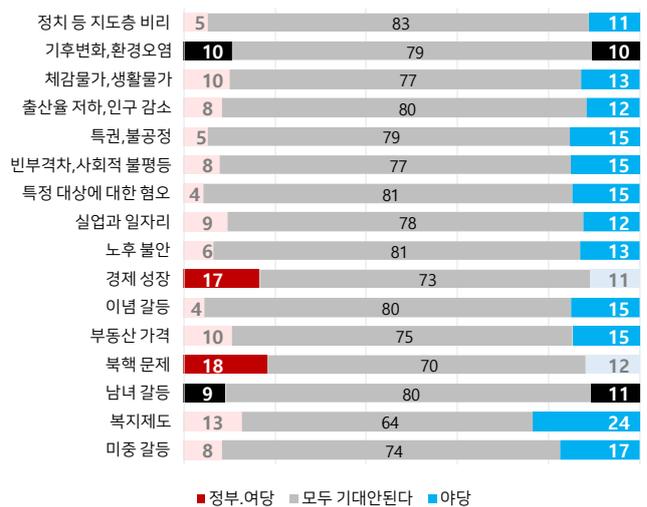
여자 18~2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남자 3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여자 3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Kstat Point

- ☑ 정치세력에 대한 2030세대의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태도를 표명한 이들만 놓고 보면 남자 20대는 정부·여당에 기대하고, 여자 20대와 남녀 30대는 야당에 기대함
 : 절대 다수가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참고만 하는 것이 적절함
- ☑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정당지지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30세대의 정당지지도는 남자 20대 국민의힘, 여자 2030세대 민주당 지지가 뚜렷하고, 남자 30대는 유동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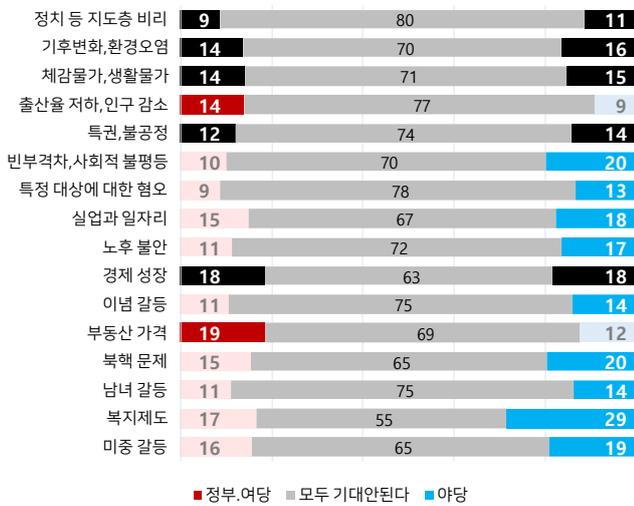
□ 40대 야당 우위, 60대이상 정부·여당 우위

- 4060세대의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을 살펴보면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40대는 야당 우위이고 60대이상은 정부·여당이 우위를 보임
 - 50대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4060세대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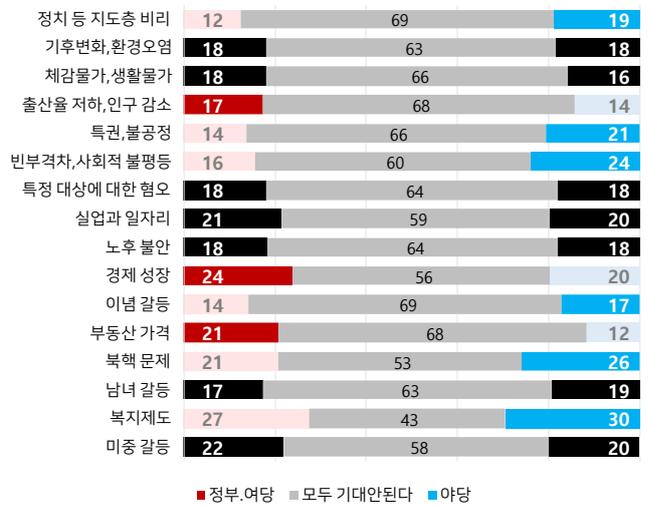
40대 : 정부·여당 2개 < 야당 9개 / 박빙 5개 50대 : 정부·여당 3개 < 야당 6개 / 박빙 7개

60대 : 정부·여당 16개 > 야당 0개 / 박빙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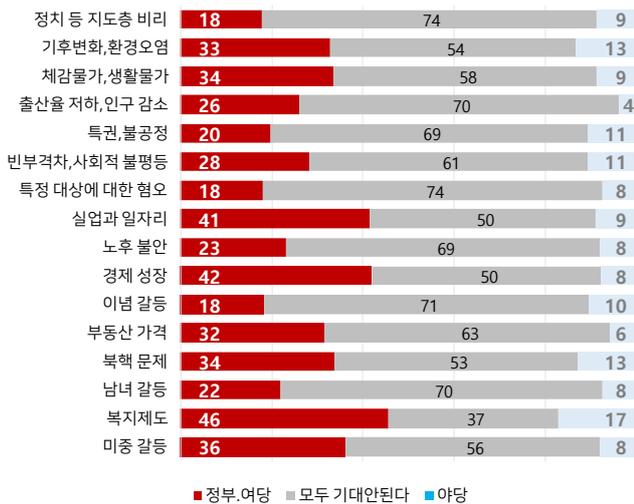
4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5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60대이상,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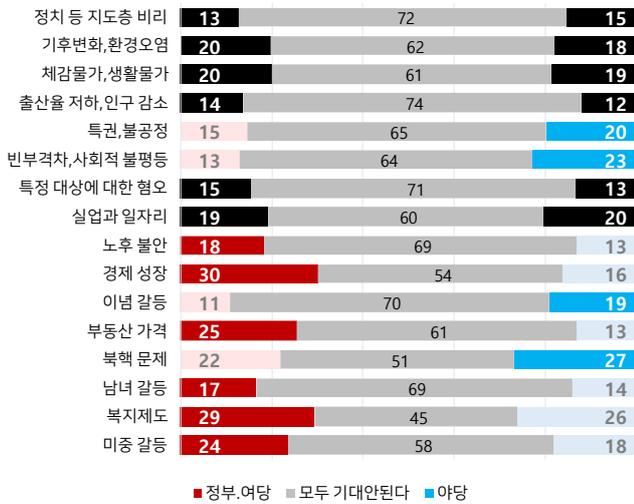
Kstat Point

- ☑ 40대는 야당, 60대 이상은 정부·여당에 기대하는 양상이고, 이 역시 정당지지도와 유사함
 - : 정당지지도에서 40대는 민주당, 50대는 박빙, 60대이상은 국민의힘이 우위임(자료:NBS, 7월31일~8월 1일 조사)
- ☑ 우리사회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은 모든 성·연령에 걸쳐 매우 낮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22대 총선은 특정 정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 특정 정당이 싫어서 반대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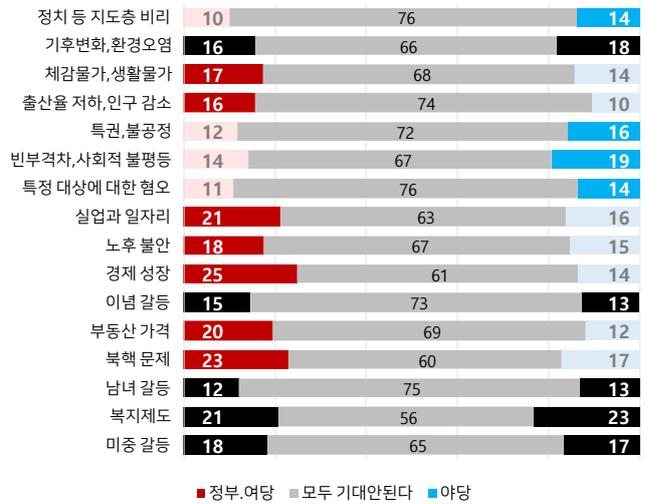
□ 수도권 팽팽, 충청과 PK 정부·여당 우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은 팽팽한 모습이고, 충청과 PK는 정부·여당이 우위를 보임
- 수도권과 충청, PK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서울 : 정부·여당 6개 > 야당 4개 / 박빙 6개 **경기.인천** : 정부·여당 7개 > 야당 4개 / 박빙 5개
충청 : 정부·여당 11개 > 야당 3개 / 박빙 2개 **PK** : 정부·여당 14개 > 야당 0개 / 박빙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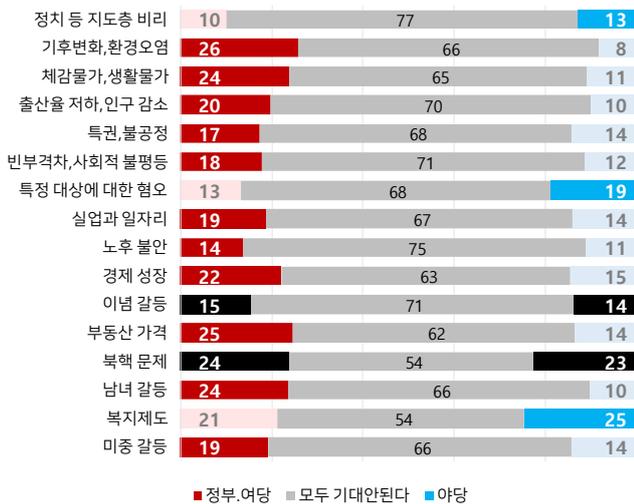
서울,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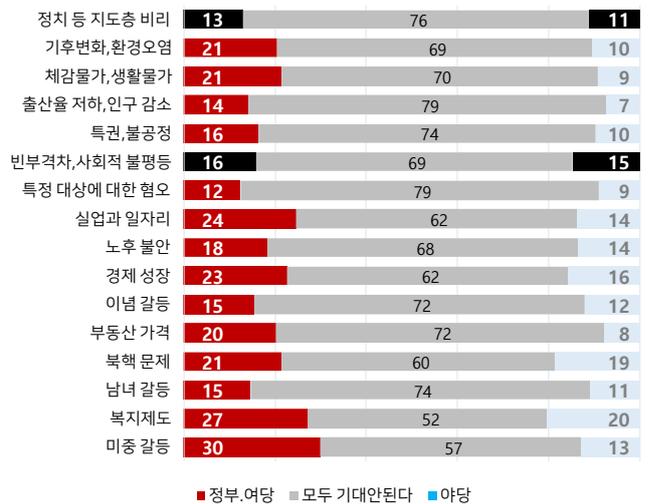
경기.인천,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충청,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PK,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Kstat Point

- ☑ 수도권은 팽팽하고, 충청과 PK는 정부·여당에 기대하는 모습임
 : NBS의 7월31일 ~ 8월 1일 정당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인천, 충청, PK 모두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음
- ☑ 한편, 이번 케이스탯 조사의 특징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기보다,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야당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정치 행보에 대해 국민 다수가 실망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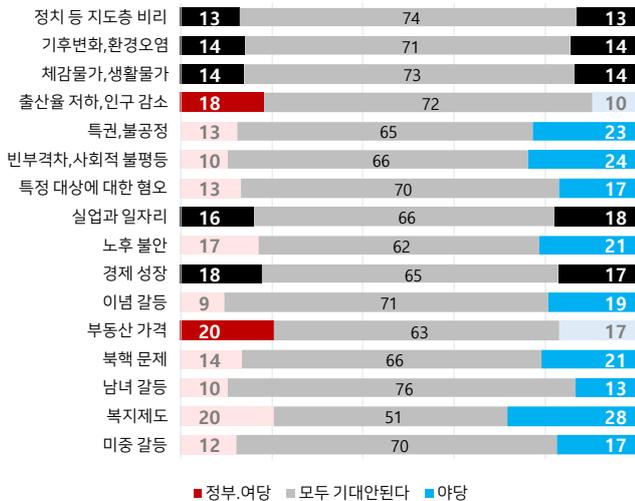
□ 호남은 야당, TK는 정부·여당 우위

- 호남과 TK도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호남은 야당이 우위이고, TK는 정부·여당이 우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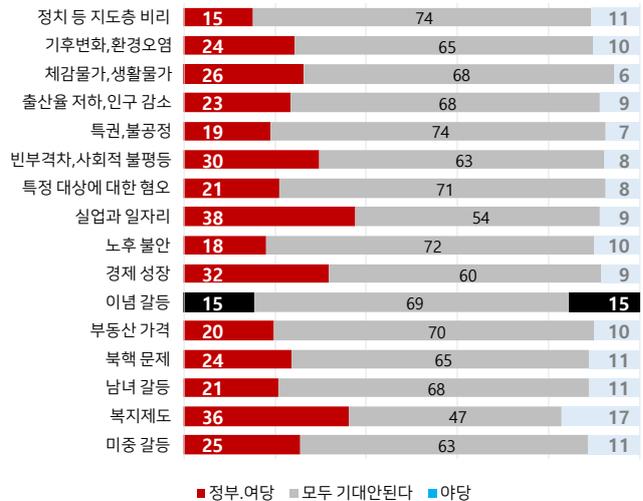
- 호남과 TK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호남 : 정부·여당 2개 < 야당 9개 / 박빙 5개 TK : 정부·여당 15개 > 야당 0개 / 박빙 1개

호남,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TK,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Kstat Point

- ☑ 전통적으로 호남은 민주당 기반이고, TK는 국민의힘 기반인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뚜렷함
- ☑ 다만, 기대의 강도면에서 호남보다 TK가 압도적으로 높음
 - : TK는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호남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모습임
 - :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의 시선이 우호적이지만은 없다는 점이며, 이는 앞서 다른 지역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의 정치 행보에 대해 실망한 결과로 보임
- ☑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 모두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바, 국민들이 이러한 양 정치세력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됨
 - : 현재의 ‘낮은 기대감’에 주목하면, 양 정치세력의 정책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냉소적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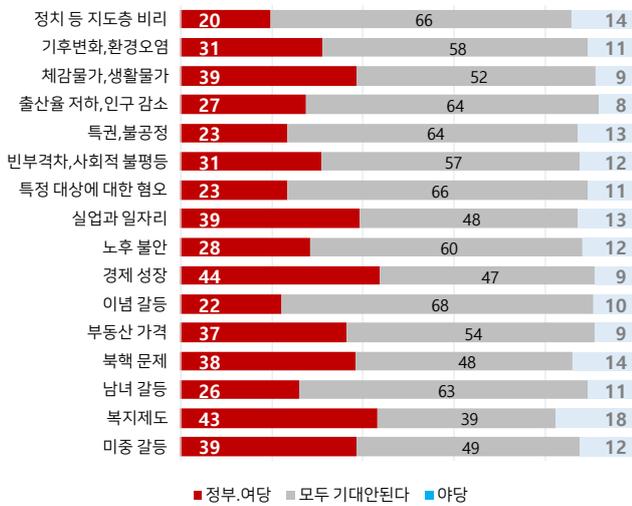
□ 보수층과 진보층, 이념 따른 정치세력 지지 뚜렷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을 살펴보면 보수층은 확실한 정부·여당 우위이고, 진보층은 확실한 야당 우위임
- 이념별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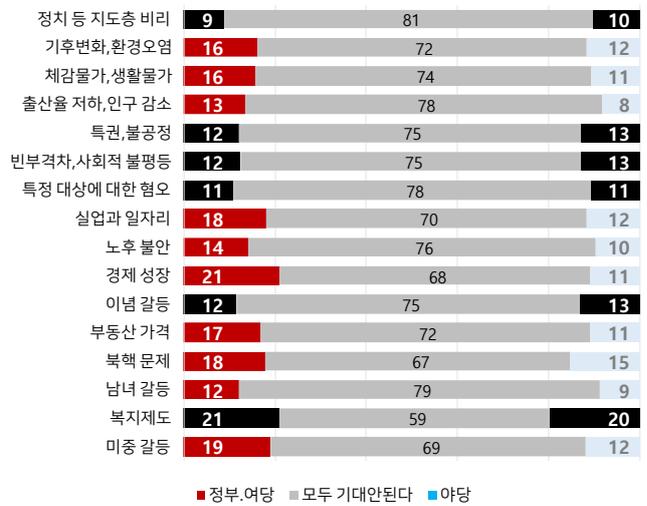
보수층 : 정부·여당 16개 > 야당 0개 / 박빙 0개
진보층 : 정부·여당 0개 < 야당 16개 / 박빙 0개

중도층 : 정부·여당 10개 > 야당 0개 / 박빙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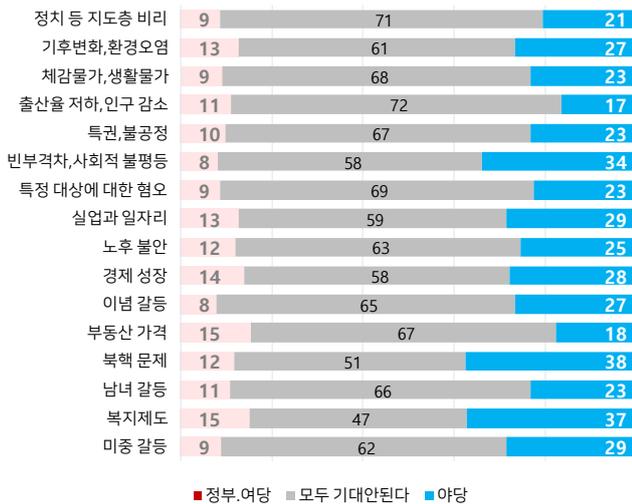
보수층,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중도층,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진보층,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2023.08.13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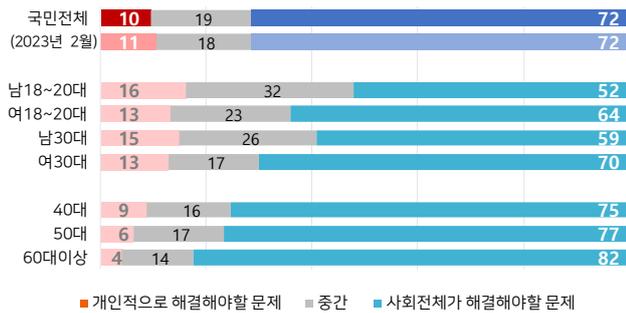
- ☑ 우리사회는 이른바 ‘정치과잉’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모든 정책과 이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층은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진보층은 야당을 옹호하는 흐름이 매우 강함
- ☑ 내년 22대 총선에서 ‘정책대결, 정책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보수층 vs 진보층 간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주요 문제 해결 방향성

□ 우리사회 주요문제,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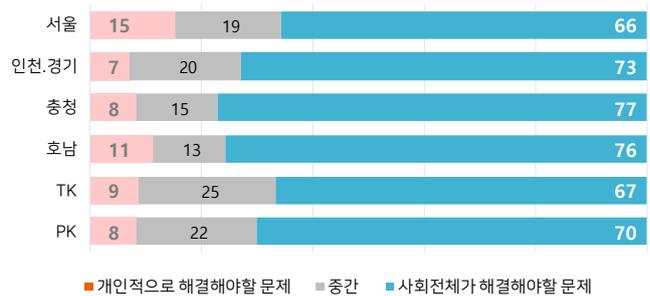
-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국민 72%는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은 10%에 그침
 - 6개월 전인 지난 2023년 2월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높고, 특히 높은 계층은 △4060세대 △충청, 호남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400만원 이상 소득층 △진보층 등임
-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대 △서울 △학생 △보수층 등임

우리사회 주요 문제 해결 방향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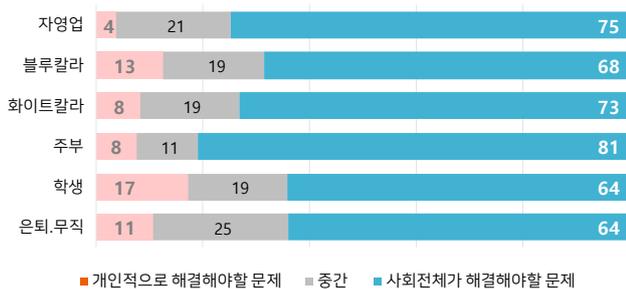
우리사회 주요 문제 해결 방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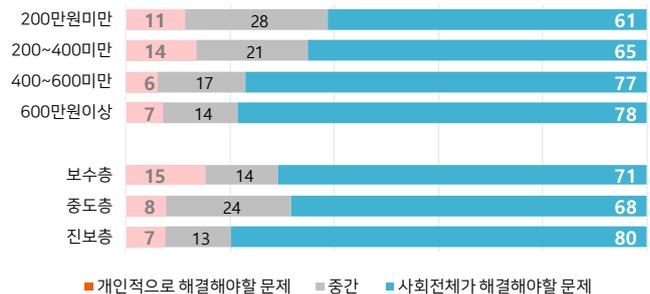
우리사회 주요 문제 해결 방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우리사회 주요 문제 해결 방향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8.2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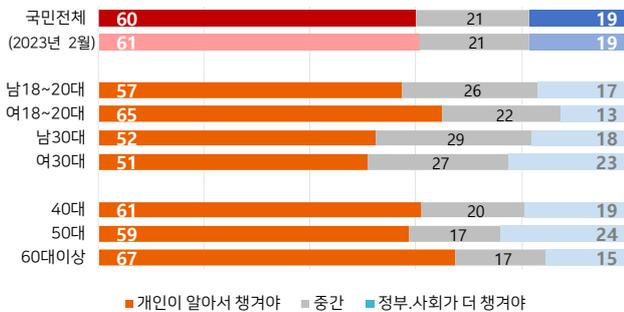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는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함
 - : 앞서의 각종 사회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이러한 문제해결은 사회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문제라는 인식이 뚜렷함
- ☑ 다만, 남자 2030세대의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남자 20대는 52%, 남자 30대는 59%로 다른 계층에 비해 유난히 낮음
 - : 이들은 사회문제라고 해도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임

□ '개인 삶',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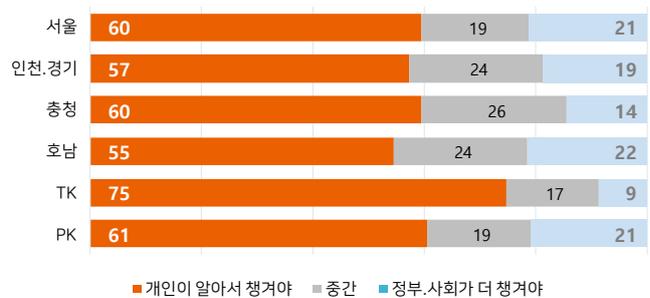
- '개인 삶'에 대해 국민 중 60%는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19%는 '정부.사회가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함
 - 6개월 전인 지난 2023년 2월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임
 - "다음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 의견에 가까우세요? 내 개인의 삶은 결국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더 많이 챙겨야 한다'에 대한 질문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특히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TK △자영업, 학생 △보수층 등임
- '정부.사회가 더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50대 △화이트칼라 등임

'개인 삶' 해결 방향 : 국민전체,성/연령별 (2023.08.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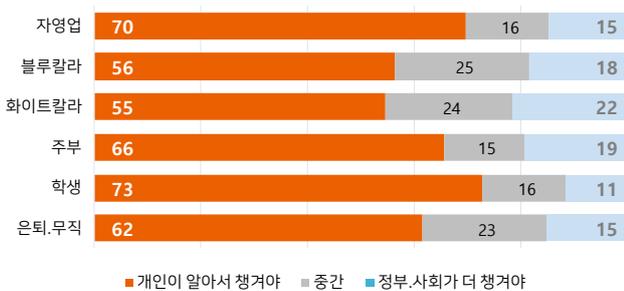
'개인 삶' 해결 방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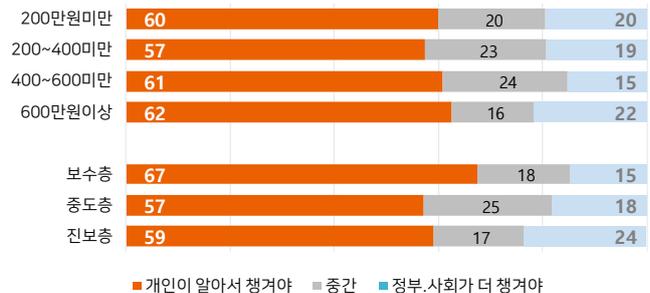
'개인 삶' 해결 방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개인 삶' 해결 방향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Kstat Point

- ☑ 현대 국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이며, 이러한 역할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
 - :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시절 '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진보·보수 정부 모두 복지를 강화해 왔음
 - : 현 윤석열 정부도 '약자 복지'라고 명명하면서 '복지'에 적극적인 모습임
 - : 즉, 우리사회는 국민 개인의 삶을 정부와 사회가 더 챙기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임
- ☑ 하지만 국민들은 '개인의 삶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아, 정부·사회의 역할에 부정적임
 - :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사회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개인의 삶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응답함
 -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세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이며, 이러한 낮은 기대감이 우리사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1호는 『우리사회 '정치 과잉' 현상 점검』이라는 주제로 2023년 8월 3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8월 사회지표는 8월 2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